

특별기고... 어원의 비교로 본 일본 신의 고향

서 정 범
〈문리대 교수·국문학〉

I. 日本原住民과 韓國人

미국의 이른바 아메리카인디언은 약 1만5천년에서 2만5천년전에 아시아에서 건너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白人들이 건너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미국을 형성했다고 보겠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약 3만년전에 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日本土의 主人(주인)이었는데 아이누족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일본의 土主(토주)가 되었다고 한다.

아이누인은 일본인을 samo라고 한다. 아이누어로는 말의 본뜻은 '사람'의 뜻을 지닌다. 아이누어는 일본인을 samo라고 하는데 samo 사람의 뜻을 지닌다고 하겠으며 이 말의 어원을 밝힐 수 있게 될 일본인의 뿌리를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이랄까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 新羅(신라)에 대표적 국가명에 까지 이른게 된다.

新羅의 옛이름은 新羅, 新羅인데 新羅는 '삼'이다. 사람(人)의 新羅(삼)과 일치하고 있다.

新羅語 日本語
Kurum(舊) Kumo(舊)
Sirum(新羅) Samo(新羅)
Saram(人) Samo(日本人)

위 예에서 보듯 Samo는 우리 말 사람의 '리'를 이 떨어지면 Samo가 된다. 이는 일본민족의 조상이 사람이란 韓人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증인다고 하겠다.

3만5천전에 일본에 내려온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최초로 본 외국의 민족인 시모(사람)라고 하겠다. 따라서 일본인의 조상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는 말이 된다. 현대日本人 古代韓人을 Kara(韓)라고 볼것이다. Kara는 日本語에서 韓(韓)라는 뜻을 지니는 말이다.

음운인 韓語에 대해 kara(韓)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古代韓語가 古代日本을 무리하고 불렀을것.

한자는 왜(韓)지만 韓語(韓語)에는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어리스군'이라 읽을 수 있는

데 어리(德理)가 '에'에 해당되는 말이다. 즉 신라시대에는 일본을 '어리'라고 불렀다고 하겠다. '어리, 어이'로 변했다고 하겠다.

이 '어리'도 사람의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귀머리·방어리'의 '어리'가 바로 사람의 뜻을 지닌다.

어른(成人)의 '얼', 우리(吾)의을, 아홉(九)의 '알'의 어근이 모두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는 말로서 '어리'와 어원이 같다고 하겠다.

고대한국이 일본에 어리(人)로 불렸다고 하겠다.

14세기 카다마제지카후사가 쓴 신원정통기에 따르면 옛날 일본을 삼한과 동족이었는데 이의 관련된 문헌을 참조하면 782-800년에 대위되었다고 했다.

일본의 연희시정잡에 따르면 공내성에 삼한의 신사가 있는데 두개는 '가라(韓)신사'라는 것과 한신을 초청하는 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황실이 한 국제라는 것과 강력한 예증이 된다고 하겠다.

왜(韓)라고 표기한 것은 '어리, 어이, 에'를 한자 '韓'로 음차한 것이라 하겠고 '韓'자에도 '人'변이 있다는 것은 '韓'에는 사람이 뜻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민족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신화의 주인공

일본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스사노 오노미코(大己貴)이다. 일본서기에는 스사가 너무 난 폭해서 신라로 추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서기에는 추방한 이유가 다르다.

'스사'가 정신과 현안이 다른 정도로 불복을 한다. 그러자 일본의 국조신인 이자나(伊弉諾)가 '너는 어찌서 내가 위대한 나라라는 다스리라고 하고 매일 울기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스사'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신 가다스구나'라고 고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스사'는 어머니의 뿌리와 나라의 조상의 나라인 가다스구나에 가다(Kam)는 '리(Kara)'의 의미이다. '리'를 음운에서 변한 음이기 때문에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이렇듯 일본민족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신화의 주인공

일본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스사노 오노미코(大己貴)이다. 일본서기에는 스사가 너무 난 폭해서 신라로 추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서기에는 추방한 이유가 다르다.

'스사'가 정신과 현안이 다른 정도로 불복을 한다. 그러자 일본의 국조신인 이자나(伊弉諾)가 '너는 어찌서 내가 위대한 나라라는 다스리라고 하고 매일 울기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스사'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신 가다스구나'라고 고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스사'는 어머니의 뿌리와 나라의 조상의 나라인 가다스구나에 가다(Kam)는 '리(Kara)'의 의미이다. '리'를 음운에서 변한 음이기 때문에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이렇듯 일본민족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신화의 주인공

일본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스사노 오노미코(大己貴)이다. 일본서기에는 스사가 너무 난 폭해서 신라로 추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서기에는 추방한 이유가 다르다.

'스사'가 정신과 현안이 다른 정도로 불복을 한다. 그러자 일본의 국조신인 이자나(伊弉諾)가 '너는 어찌서 내가 위대한 나라라는 다스리라고 하고 매일 울기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스사'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신 가다스구나'라고 고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스사'는 어머니의 뿌리와 나라의 조상의 나라인 가다스구나에 가다(Kam)는 '리(Kara)'의 의미이다. '리'를 음운에서 변한 음이기 때문에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이렇듯 일본민족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신화의 주인공

일본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스사노 오노미코(大己貴)이다. 일본서기에는 스사가 너무 난 폭해서 신라로 추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서기에는 추방한 이유가 다르다.

'스사'가 정신과 현안이 다른 정도로 불복을 한다. 그러자 일본의 국조신인 이자나(伊弉諾)가 '너는 어찌서 내가 위대한 나라라는 다스리라고 하고 매일 울기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스사'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신 가다스구나'라고 고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스사'는 어머니의 뿌리와 나라의 조상의 나라인 가다스구나에 가다(Kam)는 '리(Kara)'의 의미이다. '리'를 음운에서 변한 음이기 때문에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이렇듯 일본민족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신화의 주인공

일본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스사노 오노미코(大己貴)이다. 일본서기에는 스사가 너무 난 폭해서 신라로 추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서기에는 추방한 이유가 다르다.

'스사'가 정신과 현안이 다른 정도로 불복을 한다. 그러자 일본의 국조신인 이자나(伊弉諾)가 '너는 어찌서 내가 위대한 나라라는 다스리라고 하고 매일 울기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스사'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신 가다스구나'라고 고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스사'는 어머니의 뿌리와 나라의 조상의 나라인 가다스구나에 가다(Kam)는 '리(Kara)'의 의미이다. '리'를 음운에서 변한 음이기 때문에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이렇듯 일본민족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신화의 주인공

일본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스사노 오노미코(大己貴)이다. 일본서기에는 스사가 너무 난 폭해서 신라로 추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서기에는 추방한 이유가 다르다.

'스사'가 정신과 현안이 다른 정도로 불복을 한다. 그러자 일본의 국조신인 이자나(伊弉諾)가 '너는 어찌서 내가 위대한 나라라는 다스리라고 하고 매일 울기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스사'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신 가다스구나'라고 고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스사'는 어머니의 뿌리와 나라의 조상의 나라인 가다스구나에 가다(Kam)는 '리(Kara)'의 의미이다. '리'를 음운에서 변한 음이기 때문에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이렇듯 일본민족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신화의 주인공

일본신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스사노 오노미코(大己貴)이다. 일본서기에는 스사가 너무 난 폭해서 신라로 추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서기에는 추방한 이유가 다르다.

'스사'가 정신과 현안이 다른 정도로 불복을 한다. 그러자 일본의 국조신인 이자나(伊弉諾)가 '너는 어찌서 내가 위대한 나라라는 다스리라고 하고 매일 울기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스사'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신 가다스구나'라고 고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스사'는 어머니의 뿌리와 나라의 조상의 나라인 가다스구나에 가다(Kam)는 '리(Kara)'의 의미이다. '리'를 음운에서 변한 음이기 때문에 '에'라고 했다. 신라의 한가인 韓詩(한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가 있는데 왜군을 뜻하는 표기이다.

다.

이즈모대사는 해안에서 2km

거리에 있다. 해안에는 이나시노

하마라고 하는 곳인데 그들의 신

화에 의하면 이나시노하마는 옛날에 신라에서 밭갈로 끌려온 곳

이라고 한다.

이나시노하마에서 서쪽과 북쪽

이 바로 신라가 된다.

이즈모대사의 신관의 말에 의

하면 지금도 한글로 된 부유물이

이나시노하마에 퍼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은 죽으면 모태회귀현

상과 귀소성이 작용하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 간다고 여

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은 '北極'이

다. 이는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

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도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

신을 굽기'로 하고 있는데 북쪽은

죽어서 돌아가는 곳이라 하겠다.

일본서기에는 '北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친구가 사자의 혼두루미기

를 들고 지붕위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北, 南, 東, 西'를 외친다.

북쪽에서 '北'을 외치면 돌아가는

것은 '北'이 되는 것이 아닌가?

충청도에는 앞남(南) 뒤북(北)

이 있다. 이는 북쪽에서 '南'을

을 향하여 내려간 민족임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하겠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죽

어서 조상의 나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귀소성이라고 하겠다.

전통적인 혼인제 가리기를 쓰

는 것도 가리기는 북에서 와서

북으로 돌아간다는데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옛날부터 가리기는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혼인을 조상들에게

전해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

겠다. 아가 못하는 이는 황성신이

가 자식을 낳지 못 할 것을 기원

한다. 황성신이 생명을 주었으니

죽어서도 다시 황성으로 돌아간

다고 여기고 있다. 관을 '황성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소

성의 표현이다.

이즈모지방의 신사의 주신들

은 서쪽과 북쪽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조상의 나라인

신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것이 아닌가?

신체가 어머니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현

상이 아니겠는가?

일본에서 유래 10월에는 전국

에 있는 요조즈(八咫鏡)의 신들

이 이즈모에 모이기 때문에 10월

을 '神無月'이라고 하고 이즈모

지방에서는 일본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유월'이 된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만구천의

신들이 온다.

전국에서 온 신들은 이나시노

하마를 통해서 상륙한다. 육지를

통해서 온 신들도 모두 일단은

바다로 나가다가 이나시노하마라

는 곳의 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이

다.

이즈모지방에서 가장 큰 신사

는 이즈모대사가 되는데 모인 신

들은 이즈모대사에서 머물게 된

다.

이즈모대사는 일구가 남한이

만 이즈모대사의 제신(祭神)은

다.

이즈모에 모이기 때문에 10월

을 '神無月'이라고 하고 이즈모

지방에서는 일본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유월'이 된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만구천의

신들이 온다.

전국에서 온 신들은 이나시노

하마를 통해서 상륙한다. 육지를

통해서 온 신들도 모두 일단은

바다로 나가다가 이나시노하마라

는 곳의 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이

다.

이즈모지방에서 가장 큰 신사

는 이즈모대사가 되는데 모인 신

들은 이즈모대사에서 머물게 된

다.

이즈모대사는 일구가 남한이

만 이즈모대사의 제신(祭神)은

다.

이즈모에 모이기 때문에 10월

을 '神無月'이라고 하고 이즈모

지방에서는 일본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유월'이 된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만구천의

신들이 온다.

전국에서 온 신들은 이나시노

하마를 통해서 상륙한다. 육지를

통해서 온 신들도 모두 일단은

바다로 나가다가 이나시노하마라

는 곳의 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이

다.

이즈모지방에서 가장 큰 신사

는 이즈모대사가 되는데 모인 신

들은 이즈모대사에서 머물게 된

다.

이즈모대사는 일구가 남한이

만 이즈모대사의 제신(祭神)은

다.

이즈모에 모이기 때문에 10월

을 '神無月'이라고 하고 이즈모

지방에서는 일본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유월'이 된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만구천의

신들이 온다.

전국에서 온 신들은 이나시노

하마를 통해서 상륙한다. 육지를

통해서 온 신들도 모두 일단은

바다로 나가다가 이나시노하마라

는 곳의 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이

다.

이즈모지방에서 가장 큰 신사

는 이즈모대사가 되는데 모인 신

들은 이즈모대사에서 머물게 된

다.

이즈모대사는 일구가 남한이

만 이즈모대사의 제신(祭神)은

다.

이즈모에 모이기 때문에 10월

을 '神無月'이라고 하고 이즈모

지방에서는 일본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유월'이 된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만구천의

신들이 온다.

전국에서 온 신들은 이나시노

하마를 통해서 상륙한다. 육지를

통해서 온 신들도 모두 일단은

바다로 나가다가 이나시노하마라

는 곳의 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이

다.

이즈모지방에서 가장 큰 신사

는 이즈모대사가 되는데 모인 신

들은 이즈모대사에서 머물게 된

다.

이즈모대사는 일구가 남한이

만 이즈모대사의 제신(祭神)은

다.

이즈모에 모이기 때문에 10월

을 '神無月'이라고 하고 이즈모